



스즈메의 문단속

한, '스즈메' '슬램덩크' 장기 집권
일 OTT 톱10엔 한국 드라마 포진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인기가 재 가지기도 전에 개봉한 '스즈메의 문단속'까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극장가를 장기 집권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일본에서는 한국드라마가 현지 드라마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극장 점령한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은 28일까지 누적 관객 429만 명과 307만 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모으며 나란히 올해 개봉작 흥행 순위 1위, 2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영화의 연이은 부진과 달리 '스즈메의 문단속'은 21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봉 석 달째인 '슬램덩크'도 여전히 3위를 지키고 있다.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등으로 다수의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하라 케이이치 감독의 '겨울 속 외판 성'도 다음 달 12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 한국영화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의 목소리를 연기한 일본 성우들까지 이례적으로 내한해 관심을 끈다. '스즈메의 문단속'의 하라 나노카와 '귀멸의 칼날: 상현집결, 그리고 도공 마을로'의 키토 아카리가 각각 국내 팬들을 만났고 '슬램덩크' 성우들도 다음 달 GV(관객과의 대화)등을 진행한다.

일부 마니아 영화로 여겨졌던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는 한국영화의 부진 속에서 호불호 없이 전 세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덕분이다. 유성은 영화평론가는 "아동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소재로 중장년층부터 젊은층, 어린이까지 전 세대가 감동할 수 있다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일본 OTT 힙쓰는 한국 드라마

반면 일본 시청자는 한국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다. 과거 한국드라마의 인기가 일본 중장년층에게 한정됐던 것과 달리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대로 젊은 세대들에게도 확대됐다. 지난해 일본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 톱 10에 2~9위까지가 모두 한국드라마인 것으로 집계됐을 정도다. 1위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스파이 패밀리'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단 10일을 제외하고 '오늘의 가장 많이 본 드라마' 1위를 모두 한국작품이 차지했다. 톱10에는 매일 한국드라마가 5편 이상 포함되고 있다. 29일 기준 '더 글로리'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타스캔들', '신성한 이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랑의 불시착'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 교토예술대학 무대예술학과 하라 이이코 교수는 현지 매체 엔카운트를 통해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이코 교수는 "박서준, 김다미, 현빈, 손예진 등 한국의 유명 스타들은 연극영화과나 대학원에서 뛰어난 연기를 배웠거나 아역배우 출신이다"라며 일본 배우들도 한국 배우들처럼 연기를 배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미 기자 smilee@donga.com

4월 10일 '아이브'부터 '에스파'·'르세라핌' 잇따라 컴백



불바람과 함께 4세대 대표 걸그룹이 돌아온다. 아이브, 르세라핌, 에스파(위부터 시계방향)가 잇달아 새 앨범을 발표하며 피할 수 없는 정면대결을 벌인다. 사진제공 | 스타쉽엔터테인먼트·쏘스뮤직·SM엔터테인먼트

살랑살랑... '4세대 걸그룹'의 봄

4세대를 대표하는 대형 신인 걸그룹들이 돌아온다.

올봄 가요계는 어느 해보다 뜨거운 걸그룹 대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낸 아이브, 르세라핌, 에스파 등이 잇달아 새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세 그룹이 전면에 나서면서 석달 넘게 각종 음원차트에서 장기 흥행 중인 뉴진스의 독식을 막을 수 있을지도 흥미를 자극한다.

●아이브 '4연속 메가히트' 도전

아이브의 기세가 무섭다. 4월 10일 첫 정규앨범 '아이 해브 아이브'(I've IVE)를 발표하며 전작 '애프터 라이크'(After LIKE) 이후 8개월 만에 돌아온다. 이들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27일 수록곡 '키치'(Kitsch)를 선공개하고 4연속 히트에 도전했다. 예상은 적중했고, 성공이다. 이날 발표한 '키치'는 공개와 동시에 국내 최대음원 사이트 멜론 등에서 29일 오후 4시 현재 뉴진스의 히트곡 'OMG'와 '하이퍼 보이'(Hype boy)를 제치고 1위를 기록 중이다.

'키치'는 강렬한 비트와 베이스를 토대로 다채로운 악기 사운드가 어우러진 노래로 특히 편안하게 흘러가다가도 강렬한 반전을 내보이는 후렴구가 인상적

아이브, '키치' 선공개...느낌 팍 에스파, 5월 컴백 명예회복 각오 르세라핌, 7달 만에 첫 정규앨범

이다.

아이브는 정규 1집을 시작으로 북미 시장에도 진출한다. 카가엔터테인먼트는 "아이브는 첫 정규앨범을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해외 무대로 더욱 영역을 넓힐 것"이라며 "글로벌 케이(K)팝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싱글 '일레븐'(ELEVEN)으로 데뷔한 아이브는 '러브 다이브'(LOVE DIVE), '애프터 라이크'(After LIKE)까지 3연타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러브 다이브'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연간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연말 각종 음악 시상식에서 신인상과 대상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세 장의 싱글로 누적 음반 판매고 300만 장을 기록했으며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총 37회 1위에 올랐다.

●에스파·르세라핌 '진검승부 이제부터'

최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경영

권 분쟁으로 컴백이 미뤄졌던 에스파는 5월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이들은 애초 2월 컴백을 목표로 준비해왔지만 5월로 연기됐다. 구체적인 앨범명이나 시기 등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의 신보는 지난해 7월 두 번째 미니음반 'Girls'(걸스) 이후 10개월 만이다. '걸스'는 선주문 164만 장으로 케이팝 걸그룹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20년 '블랙맘바'로 데뷔한 에스파는 '넥스트 레벨', '재비지'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걸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메타버스 세계관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한 차례 컴백이 연기된 만큼 명예회복을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르세라핌도 7개월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 이들도 뮤직비디오 촬영 등 앨범과 관련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르세라핌은 '피어리스'(FEARLESS)와 '안티프래자일'(ANTIFRAGILE)로 사랑받았다. 이들은 두 번째 미니음반 '안티프래자일'을 통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4위로 진입해 케이팝 걸그룹 역사상 최단 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판매량 역시 100만 장을 돌파하며 데뷔 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한복 입은 보나·방탄모 쓴 권은빈...걸그룹 출신 배우들 눈길

보나, '조선변호사'서 공주 역할 권은빈, '전쟁활동'서 액션 연기

우주소녀 멤버 보나(김지연), CLC 출신 권은빈, 우주소녀 출신 루다 등이 무대가 아닌 안방극장에서 맞붙는다. 이들은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주로 출연하는 청춘 로맨스에서 벗어나 사극, 액션,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눈길을 끈다.

보나는 31일 첫 방송하는 MBC 새 금토드라마 '조선변호사'를 주연한다. 그는 조선시대 변호사인 '외지부'의 활약을 다룬 드라마에서 여종으로 신분을 숨기고 세상에 나온 공주를 연기한다. 불의를 참지 않는 정의로움 캐릭터로 돈란 밝히는 조선 최고 외지부 우도환과 함께 다양한 송사(소송)를 해결해간다. 이 과정에서 우도환과 자신의 정혼자인 명문가 자제 차학연 사이에서 삼각 로맨스도 펼친다.



보나

권은빈

사극 도전은 연기 데뷔작인 2017년 KBS 2TV '최고의 한방' 이후 처음이다. 그는 이를 통해 지난해 tvN '스물다섯 스물하나'로 넓힌 주연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는 각오다. 보나는 "휴머니즘과 정의 등을 담은 드라마가 다양한 세대에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권은빈은 31일 공개하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방과 후 전쟁활동'을 내놓는다. 그는 괴생명체와 전쟁에 나서는 성진고 3학년 2반 학생으로 등장해 김기

해, 김민철, 문상민 등 동급생 친구들과 이야기를 끌고나간다. 탈탈하고 화끈한 성격을 가진 의리파 여고생 연보라 역을 연기하면서 다양한 액션 장면도 소화한다. 2018년 MBC '배드파파' 등을 조연했던 그는 지난해 5월 걸그룹 CLC가 해체한 이후 배우로 전향했다.

3월 우주소녀를 탈퇴한 루다도 OTT 바바요에서 4월 5일 공개하는 '린자면옥'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극중 아버지가 물려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단아 역을 맡았다. 드라마는 유체이탈 능력을 가진 그가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영혼들에 국수를 만들어주는 '숙수신'으로부터 국수 요리법을 배우는 과정을 담는다. 루다는 29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첫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 부담감이 컸지만 제작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준비했다"면서 "앞으로 '민보배'(민고보)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스포츠동아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11

연예뉴스 HOT 5

티빙 '몸값'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초청



배우 진선규와 전종서 주연의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몸값'이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29일 티빙과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측에 따르면 '몸값'은 장편 경쟁 부문 후보작 10편과 경합을 벌인다. 최고 영예인 베스트 시리즈를 비롯해 음악상, 각본상, 배우상 등 5개 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한다.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은 전 세계 드라마·시리즈 콘텐츠를 대상으로 마련되는 행사다. '몸값'은 몸값을 흥정하는 이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안에서 생존을 위해 광기의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그렸다.

김우빈·송승헌 주연 '택배기사' 5월 12일 공개



배우 김우빈과 송승헌이 주연하는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택배기사'가 5월 12일 공개된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택배기사'는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2071년, 비범한 싸움 실력을 갖춘 전설의 택배기사 5-8이 택배기사를 꾸꾸는 난민 사월을 만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김우빈이 택배기사 5-8을 연기하며 송승헌이 혼란한 세상에서 산소를 무기로 세상을 지배하는 악역을 맡아 대립각을 세운다. 사월 역은 강유석이 맡았다.

영화 '웅남이' 대만·홍콩 등 50개국 판권 판매



개그맨 박성광이 연출한 영화 '웅남이'가 해외 관객과 만난다. 29일 영화의 배급을 맡은 CJ CGV는 "'웅남이'가 13일 부터 4일간 열린 홍콩의 필름마켓인 '필름아트'에서 대만, 홍콩, 마카오,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50개국에 판권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4월 베트남과 대만 개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해외 개봉을 시작한다. 단군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는 100일간 쏘고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쌍둥이 곰 형제의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다. 박성용, 이이경, 염혜란, 오달수 등이 출연한다.

넥스트 출신 임창수,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 떠나



임창수

밴드 넥스트 출신 기타리스트 임창수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4세. 29일 다수의 베트남 매체와 가요계에 따르면 임창수는 25일 베트남 달랏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길가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뒤늦게 사망소식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수는 1994년 밴드 넥스트의 2집 '더 러틴 오브 넥스트 파트1: 더 비잉'에서 기타 연주를 담당하며 고 신해철과 함께 활동했다.

BTS, 日 레코드 협회 '트리플 플래티넘' 획득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레코드 협회 '트리플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29일 일본 레코드 협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2021년 7월 발표한 싱글 '버터'에 수록된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가 누적 3억 회 이상 재생돼 '트리플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일본 레코드협회는 곡의 누적 재생 횟수에 따라 실버(3000만 회 이상), 골드(5000만 회 이상), 플래티넘(1억 회 이상), 다이아몬드(5억 회 이상)로 구분해 메달을 인증한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와 '버터'에 이어 '퍼미션 투 댄스'로 플래티넘 인증을 추가해 '트리플 플래티넘' 기록을 세웠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